

2. 공통

- 2-1. 삶에 대한 만족감
- 2-2. 의료서비스 만족도
- 2-3. 일반인에 대한 신뢰
- 2-4.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2-5. 공동체 의식
- 2-6.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7. 가구 월평균 소득
- 2-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10. 환경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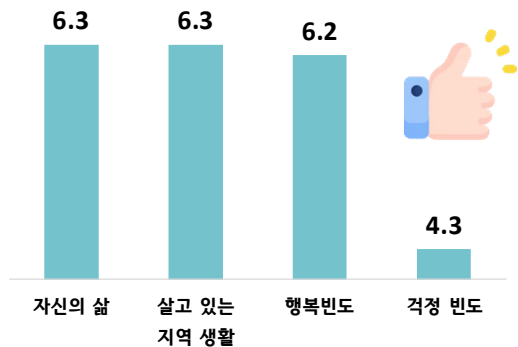
2-1. 삶에 대한 만족감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균 만족감 점수는 6점 이상 걱정 빈도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낮음

- **군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균 만족감 점수는 6점 이상, 걱정 빈도는 평균 4.3점**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균 만족감 점수와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한 평균 만족감 점수는 모두 6.3점으로 동일하고, ‘행복 빈도’는 6.2점으로 나타남
 - 서부권에서는 ‘자신의 삶’,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해 평균보다 높은 6.7점으로 응답함
 - 삶에 대한 부정적 항목인 ‘걱정 빈도’는 평균 4.3점으로 보통(5점)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남
- **행복 빈도에 대해 행복한 편으로 응답함**
 - 행복 빈도에 대해 5점이 30.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6.2점으로 나타남
- **북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걱정 빈도가 가장 낮음**
 - 평균 4.3점으로 응답함, 북부권은 평균보다 낮은 4.1점으로 걱정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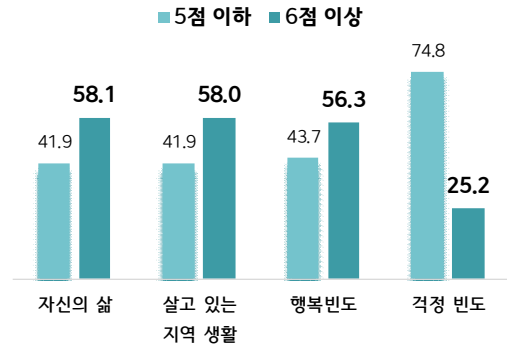
◀ 삶에 대한 만족감 ▶

(단위 : 점)



◀ 삶에 대한 만족감 비율 ▶

(단위 : %)



삶에 대한 만족감

(단위 : %)

구 분	평균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자신의 삶	6.3	100.0	0.2	0.7	1.1	4.5	6.4	29.0	12.6	14.9	16.7	8.9	5.0	
서부권	6.7	100.0	0.0	0.2	1.1	1.6	6.2	23.6	16.8	11.8	18.4	13.3	6.9	
지역 생활	6.3	100.0	0.3	0.4	2.1	3.2	4.6	31.3	14.8	13.3	14.6	10.1	5.2	
서부권	6.7	100.0	0.6	0.0	1.9	0.9	4.0	24.5	18.8	10.6	17.6	15.6	5.5	
행복 빈도	6.2	100.0	0.8	0.8	2.2	4.1	5.0	30.8	14.2	12.8	14.5	9.0	5.8	
서부권	6.6	0.7	0.2	0.7	3.5	3.0	25.9	18.7	13.0	12.4	11.9	10.1	10.1	
걱정 빈도	4.3	100.0	6.4	7.9	10.9	12.6	9.4	27.6	7.6	7.2	4.4	3.4	2.6	
북부권	4.1	100.0	4.0	6.8	14.6	14.7	10.4	32.6	3.0	6.3	5.1	1.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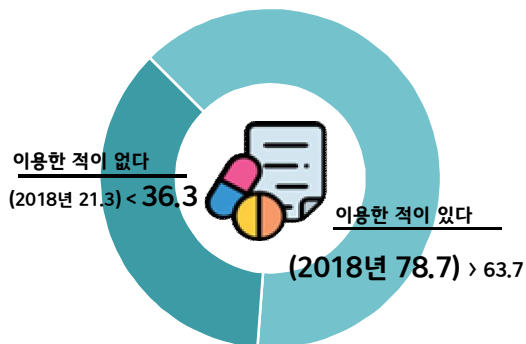
2-2.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 기관 월 평균 이용 횟수는 2.4회 10명 중 4명은 의료서비스 만족

- **군민 10명 중 6명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음**
 -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63.7%이며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군민은 36.3%임
 -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2018년(78.7%)에 비해 15.0%p 낮게 나타남
 - 의원 59.8%, 병원 25.1%, 한방병·의원 6.0%, 치과 병·의원 4.8%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대비 2020년에 '병원' 이용 경험은 12.4%p 상승하고, '의원' 이용 경험은 15.0%p 하락함
- **2018년보다 만족 비율이 하락함**
 - 2020년 '만족'(42.0%) 비율이 2018년 '만족'(68.3%) 비율보다 26.3%p 하락함
- **의료서비스의 불만족 이유는 진료대기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임**
 -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2020년에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18년에는 '의료비가 비싸다'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건소에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의료 서비스는 예방접종**
 - 2018년과 2020년 모두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는 '예방접종'이 각각 38.9%, 50.0%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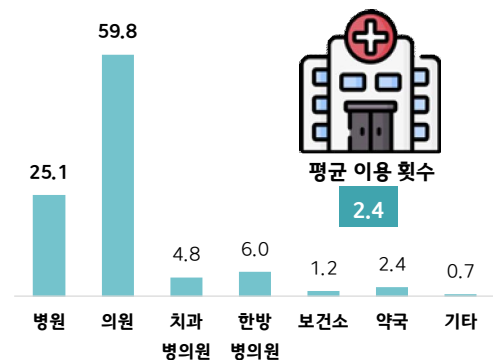
◀ 의료 서비스 이용 비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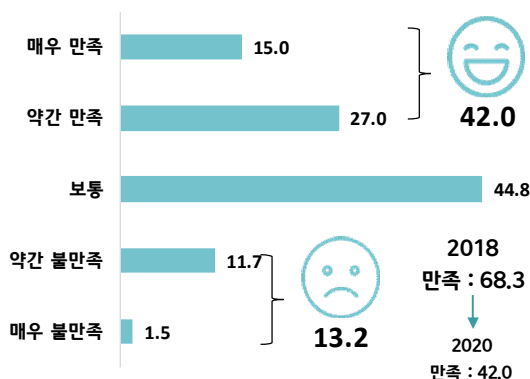
◀ 이용한 의료 기관 ▶

(단위 : 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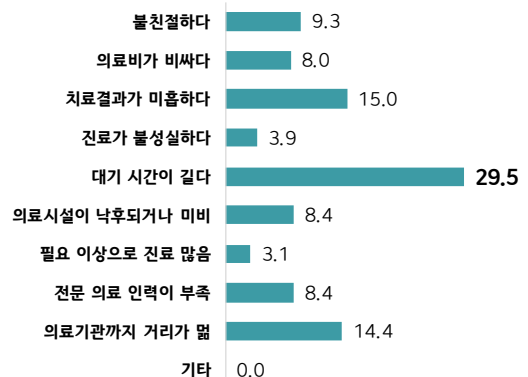
◀ 의료기관 만족도 ▶

(단위 : %)



◀ 의료기관 불만족 이유 ▶

(단위 : %)



의료서비스 만족도 - 이용 의료 기관

(단위 : 회, %)

구 분	계	이용한 적 있다	월 평균 이용 횟수										이용한 적 없다
				소계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약국 (한약국)	기타		
2 0 2 0 년	100.0	63.7	2.4	100.0	25.1	59.8	4.8	6.0	1.2	2.4	0.7	36.3	
2 0 1 8 년	100.0	78.7	2.5	100.0	12.7	74.8	4.5	3.6	3.4	0.9	0.2	21.3	

의료서비스 만족도 - 의료기관 만족도

(단위 : 점, %)

구 분	계	이용한 적 있다	만족도 평균	소계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매우 만족	이용한 적 없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2 0 2 0 년	100.0	63.7	3.4	100.0	13.2	1.5	11.7	44.8	42.0	27.0	15.0	36.3	
2 0 1 8 년	100.0	78.7	-	100.0	3.4	0.7	2.7	28.3	68.3	46.3	22.0	21.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66.4	3.7	100.0	10.9	2.9	8.0	33.3	55.8	30.2	25.6	33.6	
광 주 인 근 권	100.0	53.1	3.1	100.0	21.2	0.9	20.3	47.8	31.0	27.9	3.1	46.9	
서 부 권	100.0	63.6	3.5	100.0	4.2	0.3	4.0	56.4	39.4	20.2	19.2	36.4	
북 부 권	100.0	78.2	3.3	100.0	15.2	1.3	13.9	48.7	36.2	26.8	9.4	21.8	

의료서비스 만족도 - 불만족 이유 (다중응답)

(단위 : %)

구 분	계	불친절 하다	의료비가 비싸다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	진료가 불성실 하다	진료대기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 시설이 낙후 되거나 미비하다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집에서 의료기관 까지 거리가 멀다	기 타
2 0 2 0 년	100.0	9.3	8.0	15.0	3.9	29.5	8.4	3.1	8.4	14.4	0.0
2 0 1 8 년	100.0	12.1	23.4	9.7	4.3	17.4	11.6	3.8	12.7	5.0	0.0

의료서비스 만족도 -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단위 : %)

구 분	계	예방접종	건강증진	모자보건	방문 건강관리	정신건강/ 치매관리	경로당방문 보건사업	진료	기타
2 0 2 0 년	100.0	50.0	13.0	2.2	9.9	11.5	1.6	10.3	1.6
2 0 1 8 년	100.0	38.9	16.4	2.1	13.1	7.1	3.9	18.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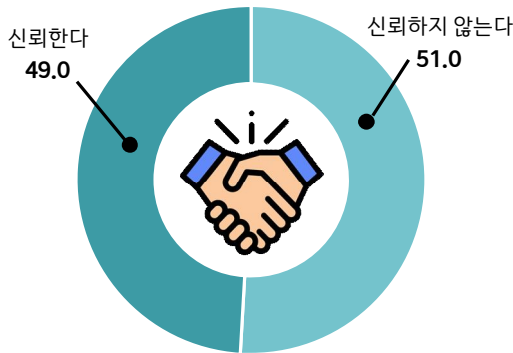
2-3. 일반인에 대한 신뢰

군민 2명 중 1명은 대부분의 사람을 대체로 신뢰

- **신뢰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49.0%,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은 51.0%**
 - 대부분의 사람(낯선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9.0%이고, 그 중 ‘약간 신뢰한다’가 45.5%, ‘완전히 신뢰한다’가 3.5%로 나타남
 - ‘신뢰하지 않는다’가 51.0%,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3.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7.2%로 나타남
- **광주인근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이 높음**
 -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인근권(54.4%)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북부권(49.1%), 중부권(46.3%), 서부권(44.1%)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뢰한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률은 50대는 50.9%, 60대와 65세 이상이 각각 56.4%, 57.2% 순으로 나타나는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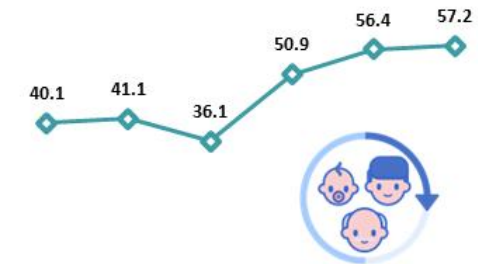
<< 일반인에 대한 신뢰 >>

(단위 : %)



<< 일반인에 대한 신뢰(연령별) >>

(단위 : %)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일반인에 대한 신뢰

(단위 : %)

구 분	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2020년 < 지역별 >	100.0	51.0	7.2	43.8	49.0	45.5	3.5
중부권	100.0	53.7	10.6	43.0	46.3	41.7	4.6
광주인근권	100.0	45.6	2.9	42.6	54.4	51.9	2.6
서부권	100.0	55.9	8.4	47.5	44.1	40.5	3.6
북부권	100.0	50.9	7.6	43.3	49.1	46.1	2.9
< 연령별 >							
15~29세	100.0	59.9	11.1	48.8	40.1	34.9	5.2
30~39세	100.0	58.9	5.3	53.6	41.1	39.8	1.3
40~49세	100.0	63.9	12.0	51.9	36.1	34.3	1.8
50~59세	100.0	49.1	4.2	44.9	50.9	49.0	1.9
60세 이상	100.0	43.6	6.6	37.1	56.4	51.6	4.8
65세 이상	100.0	42.8	5.8	37.0	57.2	53.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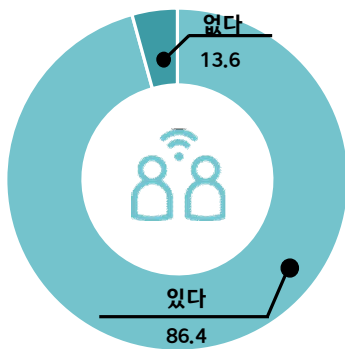
2-4.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군민의 평균 소통 인원은 4.3명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균 4.3명**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7%로 나타났고, 평균 인원은 4.3명임
 -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지역별로 비슷하지만, 평균 소통 인원은 중부권(5.0명), 서부권(4.3명), 광주인근권(4.2명), 북부권(3.5명)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통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함
 - 20대~40대는 평균 소통인원보다 많은 반면, 50대 이상은 평균 소통인원보다 적게 나타남
- **성별 간에는 평균 소통정도가 비슷하다고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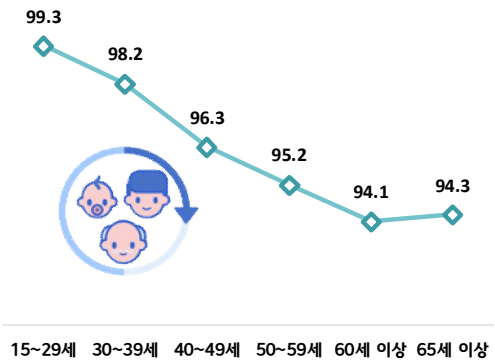
◀ 사회관계별 소통 여부 ▶

(단위 : %)



◀ 연령별 소통 비율 ▶

(단위 : %)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단위 : %, 명)

구 분	계	있다	없다	
			평균 인원	
2020년	100.0	95.7	4.3	4.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94.4	5.0	5.6
광 주 인 근 권	100.0	97.4	4.2	2.6
서 부 권	100.0	97.1	4.3	2.9
북 부 권	100.0	93.4	3.5	6.6
〈 연 령 별 〉				
15 ~ 29 세	100.0	99.3	5.6	0.7
30 ~ 39 세	100.0	98.2	4.8	1.8
40 ~ 49 세	100.0	96.3	4.7	3.7
50 ~ 59 세	100.0	95.2	3.8	4.8
60 세 이상	100.0	94.1	4.0	5.9
65 세 이상	100.0	94.3	3.9	5.7

2-5. 공동체 의식

군민 10명 중 7명은 지역 사람들과 교류

· 군민의 70% 이상이 지역(동네) 사람들과 교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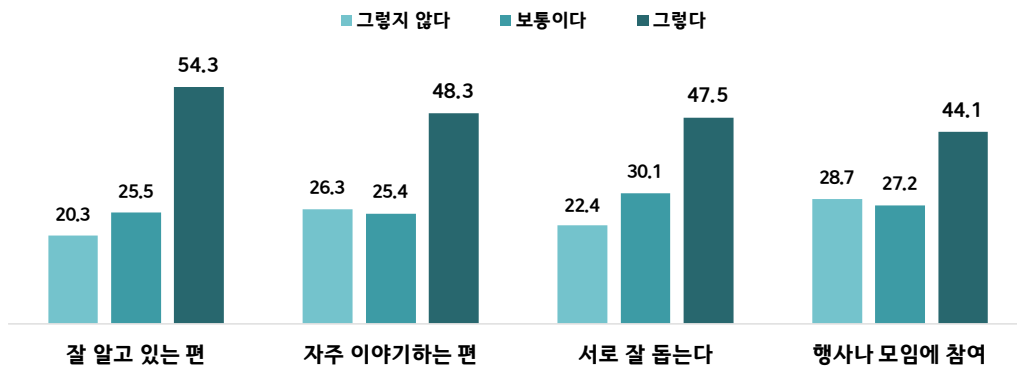
-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의 응답 중 '그렇다'(그런 편+매우)는 54.3%, '보통이다'는 25.5%, '그렇지 않다'(20.3%)를 제외한 응답이 79.8%로 높게 나타남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의 응답 중 '그렇다'(그런 편+매우)는 48.3%, '보통이다'는 25.4%로 부정적 응답을 제외한 비율이 73.7%로 높게 나타남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의 응답 중 '그렇다'(그런 편+매우)는 47.5%, '보통이다'는 30.1%로 부정적 응답을 제외한 비율이 77.6%로 높게 나타남
-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응답 중 '그렇다'(그런 편+매우)는 44.1%, '보통이다'는 27.2%로 전반적인 응답이 71.3%로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문항에 비해선 약간 낮은 비율을 보임

· 북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교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북부권은 '그렇다'와 '보통이다'의 비율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남

<< 공동체 의식 >>

(단위 : %)



공동체 의식

(단위 : %)

구분	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알고 지내는 편	100.0	20.3	7.4	12.9	25.5	54.3	34.0	20.2
북부권	100.0	5.8	2.3	3.5	27.2	66.9	44.9	22.1
자주 이야기하는 편	100.0	26.3	10.0	16.3	25.4	48.3	30.6	17.6
북부권	100.0	13.4	3.7	9.7	34.3	52.3	33.3	19.0
서로 잘 돕는다	100.0	22.4	8.8	13.6	30.1	47.5	30.0	17.5
북부권	100.0	10.6	3.7	6.8	41.7	47.7	31.4	16.3
행사나 모임에 참여	100.0	28.7	12.2	16.5	27.2	44.1	26.6	17.5
북부권	100.0	16.4	5.2	11.2	38.9	44.8	27.7	17.1

2-6.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장성군의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는 4.4점 이상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의 평균 만족도는 4.4점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그렇다'의 응답률)은 23.0%로, 잘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인 6.0%보다 17.0%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부권이 평균 만족도가 4.7점으로 전체 평균 만족도인 4.4점보다 0.3점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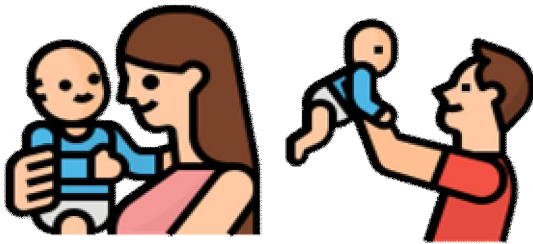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평균 만족도는 4.5점

-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그렇다'의 응답률)은 28.0%이고, 잘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은 4.4%로 23.6%p 차이를 보임
- 평균 만족도는 4.5점이고 서부권이 4.8점으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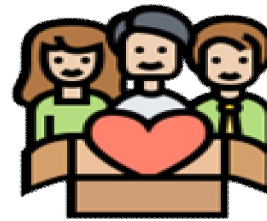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

평균 만족도 : 4.4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평균 만족도 : 4.5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됨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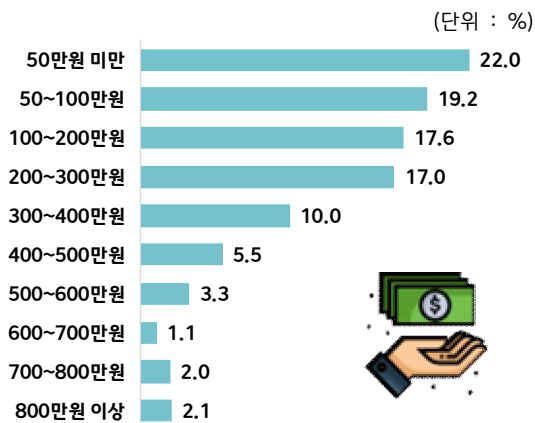
구 분	평균 만족도	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2020년	4.4	100.0	6.0	0.9	5.1	30.7	23.0	18.1	4.9	40.2	
지역별	중부권	4.4	100.0	4.7	1.0	3.7	33.1	24.6	18.8	5.9	37.6
	광주인근권	4.4	100.0	8.6	0.0	8.6	26.0	26.5	22.6	3.9	39.0
	서부권	4.7	100.0	6.9	2.8	4.1	24.4	16.2	12.2	4.0	52.6
	북부권	4.2	100.0	3.0	0.5	2.5	42.0	21.6	15.3	6.3	33.5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2020년	4.5	100.0	4.4	0.3	4.1	28.7	28.0	19.9	8.1	38.9	
지역별	중부권	4.4	100.0	6.0	0.7	5.3	26.5	30.7	23.0	7.8	36.8
	광주인근권	4.5	100.0	3.7	0.0	3.7	27.8	31.1	21.9	9.2	37.3
	서부권	4.8	100.0	4.5	0.2	4.3	24.5	18.2	12.9	5.3	52.8
	북부권	4.3	100.0	2.6	0.0	2.6	38.8	28.2	18.6	9.6	30.4

2-7. 가구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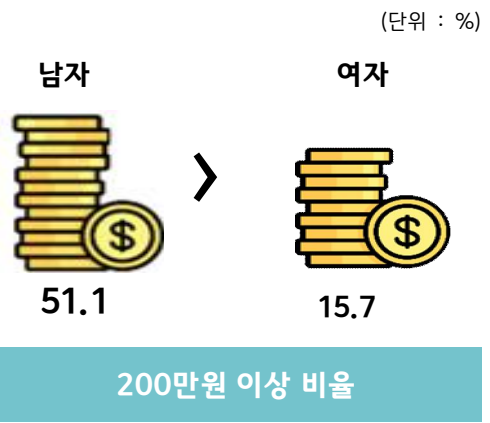
국민 5가구 중 2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

- 월평균 총 가구 소득으로 200만원 이상 비율이 41.2%로 조사됨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2018년에는 41.6%, 2020년에는 41.2%로 비슷하게 나타남
 -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2018년에는 16.3%, 2020년에는 22.0%로 5.7%p차이를 보임
 - 소득 600만원 이상의 응답률은 2018년도에는 2.6%이고 2020년도에는 5.2%로 2.6%p 증가함
- 서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비율은 서부권이 59.0%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부권이 41.7%, 광주인근권이 37.5%, 북부권이 24.3%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의 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임
 - 200만원 이상의 비율은 남자가 51.1%, 여자가 15.7%로, 남자가 35.4%p 높게 나타남

◀ 가구 월평균 소득(2020년) ▶



◀ 가구 월평균 소득(성별 차이) ▶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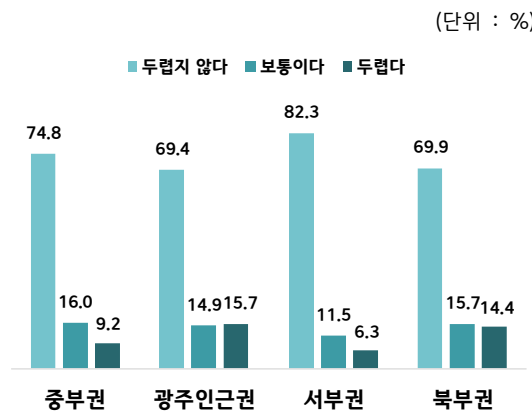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6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800만원	800만원 이상
2020년	100.0	22.0	19.2	17.6	17.0	10.0	5.5	3.3	1.1	2.0	2.1
2018년	100.0	16.3	21.0	21.1	19.0	10.4	5.8	3.9	0.9	0.5	1.2
◀ 지역별 ▶											
중부권	100.0	18.1	16.7	23.5	17.6	10.1	6.2	3.1	1.4	1.1	2.2
광주인근권	100.0	26.5	23.5	12.5	17.5	8.4	2.8	1.1	0.0	4.5	3.2
서부권	100.0	16.7	12.7	11.7	18.0	15.6	11.7	8.1	3.3	0.5	1.8
북부권	100.0	27.3	23.6	24.7	14.1	5.8	1.7	1.8	0.0	0.9	0.0
◀ 성별 ▶											
남자	100.0	13.6	18.1	17.1	20.1	13.3	7.3	4.1	1.2	2.2	2.9
여자	100.0	43.4	22.0	19.0	9.2	1.7	1.0	1.4	1.0	1.4	0.0

2-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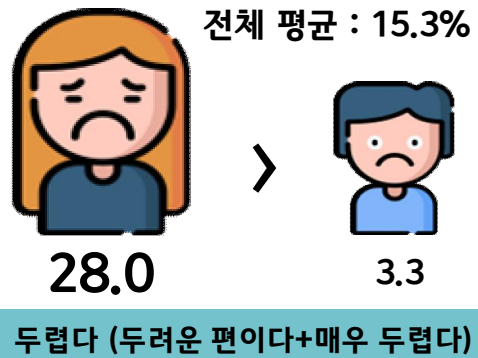
군민 10명 중 7명은 범죄피해에 대해 두렵지 않음

- 대다수의 군민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음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군민은 73.7%로 두려움을 느끼는 군민(11.6%)보다 62.1%p 높음
 -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역별로 서부권(82.3%), 중부권(74.8%), 북부권(69.9%), 광주인근권(69.4%) 순으로 나타남
- 대다수의 군민이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음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군민은 69.7%로 두려움을 느끼는 군민(15.3%)보다 54.4%p 높음
 - 두려움을 느끼는 여자의 비율(28.0%)이 남자의 비율(3.3%)에 비해 24.7%p 높음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



<< 밤에 혼자 지역의 골목길을 걸을 때(성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

구분	계	두렵지 않다	두렵다		보통이다	두렵다	두려움 정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2020년	100.0	73.7	44.1	29.6	14.7	11.6	9.8	1.8	
지역별	중부권	100.0	74.8	48.9	25.9	16.0	9.2	7.9	1.3
	광주인근권	100.0	69.4	41.5	27.9	14.9	15.7	13.6	2.1
	서부권	100.0	82.3	50.7	31.6	11.5	6.3	6.0	0.2
	북부권	100.0	69.9	32.5	37.4	15.7	14.4	10.8	3.6
밤에 혼자 지역(동네)의 골목길을 걸을 때									
2020년	100.0	69.7	41.3	28.4	15.0	15.3	12.2	3.1	
성별	남자	100.0	85.5	53.0	32.5	11.2	3.3	2.2	1.1
	여자	100.0	52.9	28.9	23.9	19.1	28.0	22.9	5.1

2-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불안 비율이 낮음

• 전반적인 사회 안전의 불안 비율은 15.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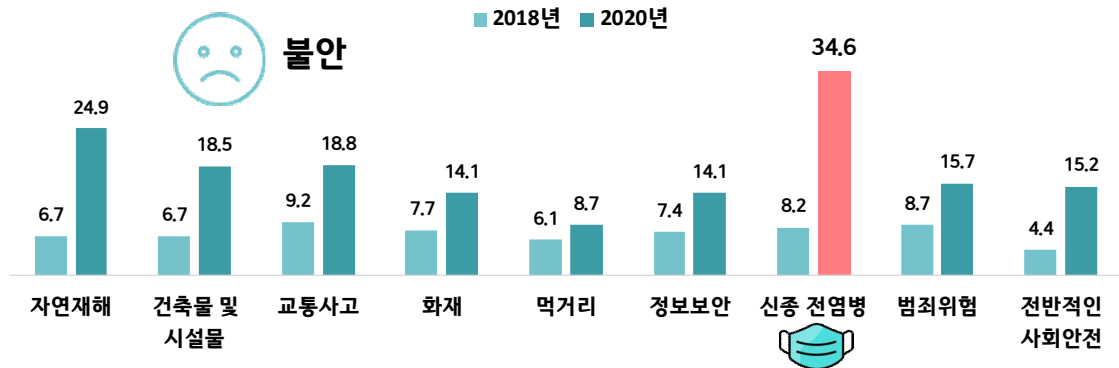
- 군민의 불안 비율은 '신종 전염병'(34.6%), '자연재해'(24.9%), '교통사고'(18.8%), '건축물 및 시설물'(18.5%), '범죄위험'(1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0년 '신종 전염병'에 대한 불안 비율은 34.6%로 2018년 8.2%에서 26.4%p 증가함
- 2020년 '먹거리'(8.7%)에 대한 불안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2018년(6.1%) 대비 2.6%p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작음
- 2018년 대비 2020년 불안 비율은 '신종 전염병'(26.4%p)에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자연재해'(18.2%p), '건축물 및 시설물'(11.8%p)에서도 10.0%p이상의 증가폭을 보임

• 전반적인 사회 안전의 안전 비율은 49.7%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사회 안전 비율은 49.7%로 2018년(51.4%) 대비 1.7%p 하락함
- 안전 비율은 '먹거리'(54.3%), '정보보안'(51.0%), '범죄위험'(50.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8년 대비 안전 비율의 하락은 '자연재해'(11.7%p), '건축물 및 시설물'(7.2%p), '신종 전염병'(4.2%p)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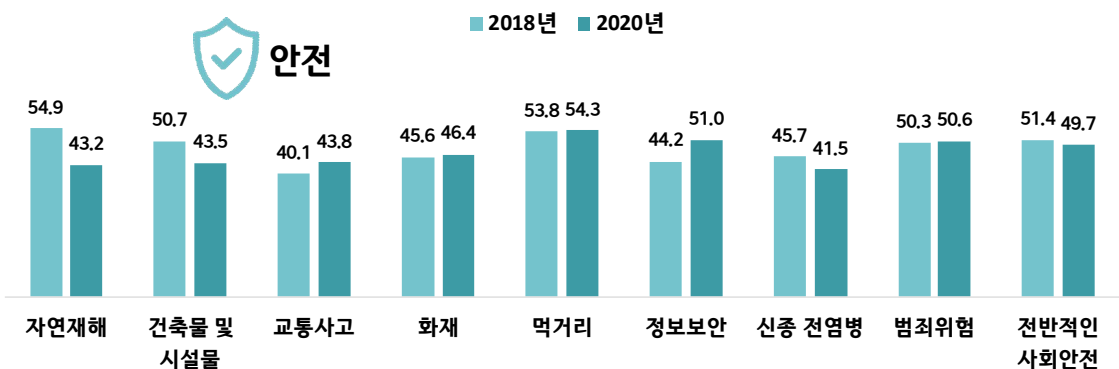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불안) >>

(단위 : %)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안전) >>

(단위 :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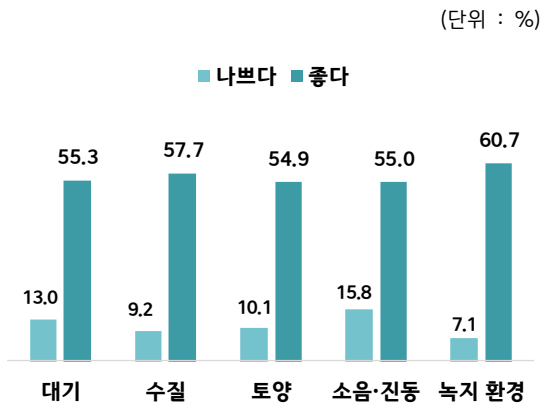
구 분	계	불안	불안		보통이다	안전	안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자연재해									
2 0 2 0 년	100.0	24.9	6.5	18.5	31.9	43.2	31.6	11.6	
2 0 1 8 년	100.0	6.7	0.4	6.3	38.3	54.9	46.8	8.1	
건축물 및 시설물									
2 0 2 0 년	100.0	18.5	2.4	16.2	38.0	43.5	32.2	11.3	
2 0 1 8 년	100.0	6.7	0.4	6.3	42.7	50.7	43.9	6.8	
교통사고									
2 0 2 0 년	100.0	18.8	3.2	15.6	37.4	43.8	32.1	11.7	
2 0 1 8 년	100.0	9.2	1.1	8.1	49.7	40.1	37.2	3.9	
화재									
2 0 2 0 년	100.0	14.1	2.2	11.9	39.5	46.4	34.8	11.6	
2 0 1 8 년	100.0	7.7	1.2	6.5	46.7	45.6	40.8	4.8	
먹거리									
2 0 2 0 년	100.0	8.7	1.4	7.3	37.1	54.3	41.3	13.0	
2 0 1 8 년	100.0	6.1	0.6	5.5	40.1	53.8	46.0	7.8	
정보보안									
2 0 2 0 년	100.0	14.1	2.7	11.3	34.9	51.0	38.0	13.0	
2 0 1 8 년	100.0	7.4	0.6	6.8	48.4	44.2	39.6	4.6	
신종 전염병									
2 0 2 0 년	100.0	34.6	18.0	16.6	23.9	41.5	32.8	8.7	
2 0 1 8 년	100.0	8.2	0.9	7.3	46.1	45.7	40.5	5.2	
범죄위험									
2 0 2 0 년	100.0	15.7	3.6	12.2	33.7	50.6	39.6	11.0	
2 0 1 8 년	100.0	8.7	0.7	8.0	41.0	50.3	45.4	4.9	
전반적인 사회 안전									
2 0 2 0 년	100.0	15.2	3.3	12.0	35.0	49.7	39.4	10.4	
2 0 1 8 년	100.0	4.4	0.5	3.9	44.1	51.4	46.6	4.8	

2-10. 환경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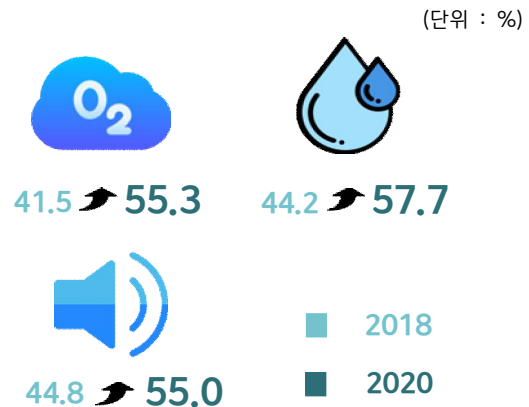
군민 과반수는 지역 환경이 좋다고 생각함

- **군민의 54.9% 이상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환경이 좋다고 생각**
 - 환경체감도 좋음의 비율은 '녹지 환경'(60.7%), '수질'(57.7%), '대기'(55.3%) 순으로 나타남
 - 환경체감도 나쁨의 비율은 '소음·진동'(15.8%) 항목에서 가장 높고, '대기'(13.0%), '토양'(10.1%), '수질'(9.2%), '녹지 환경'(7.1%)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2020년 모든 환경체감도 항목의 좋음 비율이 증가함**
 - '대기' 항목의 좋음 비율은 2020년(55.3%)이 2018년(41.5%)에 비해 13.8%p로 가장 높게 증가함
 - '수질' 항목의 좋음 비율은 2020년(57.7%)이 2018년(44.2%)에 비해 13.5%p로 두 번째로 높게 증가함

<< 환경체감도(2020년) >>



<< 환경체감도 좋음(2018년, 2020년) >>



환경체감도

(단위 : %)

구 분	계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매우 좋다					
대기									
2020년	100.0	13.0	2.0	11.0	31.7	55.3	25.9	29.5	
2018년	100.0	17.5	6.9	10.6	41.0	41.5	31.5	10.0	
수질									
2020년	100.0	9.2	1.4	7.9	33.1	57.7	28.3	29.4	
2018년	100.0	11.3	2.6	8.7	44.4	44.2	34.0	10.2	
토양									
2020년	100.0	10.1	1.3	8.8	35.0	54.9	26.6	28.3	
2018년	100.0	8.4	1.6	6.8	44.9	46.7	34.5	12.2	
소음·진동									
2020년	100.0	15.8	3.7	12.0	29.3	55.0	23.4	31.5	
2018년	100.0	15.0	4.0	11.0	40.2	44.8	30.8	14.0	
녹지 환경									
2020년	100.0	7.1	0.6	6.5	32.2	60.7	28.1	32.6	
2018년	100.0	6.7	1.4	5.3	40.9	52.4	34.1	18.3	